



지역별 창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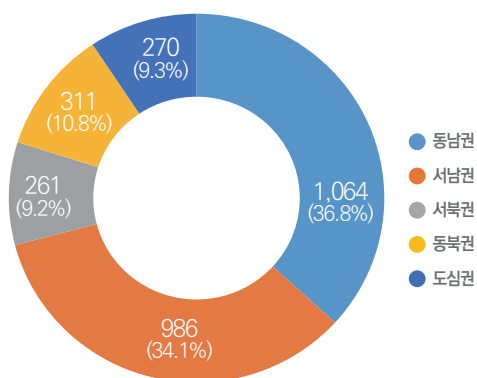
1) 5대 권역별

I 5대 권역별 창업현황

- 2019년 8월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법인창업 비중은 31.5%로 17개 시도 중 부동의 1위, 작년 동월의 비중과 동일했으며 지난 7월 보다는 0.6%p 증가
- 권역별 법인창업은 동남권이 1,064개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서남권이 986개, 동북권 311개, 도심권 270개, 서북권 261개 순으로 활성화

[그림 2] 2019년 8월 권역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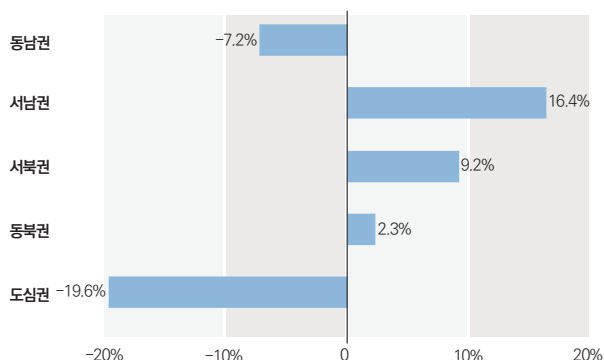
단위: 창업 법인 수(비중 %)



I 권역별 증감률(전년 동월 대비)

- 권역별 법인창업 증감률은 서남권(16.4%), 서북권(9.2%), 동북권(2.3%) 순으로 증가한 반면, 도심권(-19.6%)과 동남권(-7.2%)은 감소

[표 2] 2019년 8월 권역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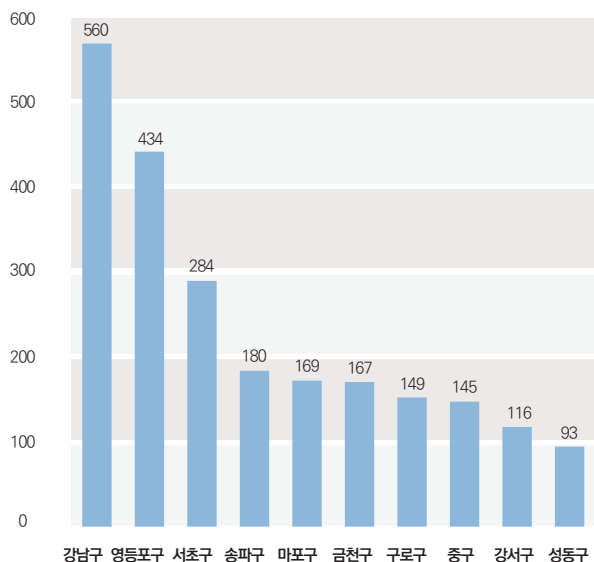
- 서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동남권의 법인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-7.2% 감소
- 동남권은 도심제조, 숙박 및 음식점, 그외기타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산업 전반에서 전년 동기 대비 법인창업 감소. 특히 산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, 비즈니스서비스, IT융합 등에서 법인창업이 큰 폭으로 감소 하면서 동남권의 법인창업 성장률이 (-)를 기록
- 서남권, 서북권, 동북권은 지난 달에 이어 법인창업 증가
- 권역중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낸 서남권은 권역내 산업 비중이 큰 금융, 비즈니스서비스, 그외기타, 도소매 등에서 활발한 법인창업이 이루어지며 16.4% 증가
- 서북권은 IT융합, 비즈니스서비스, 금융, 그외기타, 관광·MICE 등의 산업에서 활발한 법인창업이 나타나며 9.2% 증가
- 동북권은 관광·MICE, 도심제조, 숙박 및 음식점, 그외기타 등 일부 산업의 법인창업이 증가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.3%의 소폭의 성장세 유지
- 도심권 법인창업은 전년 동월 대비 -19.6% 크게 감소
- 2019년 상반기 내내 감소세를 나타냈던 도심권은 지난 7월 잠시 법인창업이 증가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섬.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, 숙박 및 음식점, 관광·MICE, 비즈니스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, 금융, IT융합 등의 업종에서 크게 감소하며 도심권의 법인창업이 감소

2) 자치구

I 자치구별 창업현황

- 2019년 8월 서울의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전업종이 강남구에 서 가장 활발
- 자치구별 법인창업은 강남구가 560개(19.4%)로 가장 많고, 그 뒤를이어 영등포구 434개(15.0%), 서초구 284개(9.8%), 송파구 180개(6.2%), 마포구 169개(5.8%), 금천구 167개(5.8%), 구로구 149개(5.2%), 중구 145개(5.0%), 강서구 116개(4.0%), 성동구 93개(3.2%) 순
- 영등포구는 금융, IT융합, 비즈니스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 자치구 중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법인창업 증가
- 서초구는 강남구에 이어 전산업 모두 법인창업 수 상위 5위 이내를 나타내며 고른 업종 분포로 활발한 법인창업
-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(그외산업 제외)한 금융의 법인창업이 활발한 지역은 영등포구, 강남, 중구 순
-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영등포구(104개), 구로구(31개), 서초구(18개), 송파구(17개), 동작구(11개) 순

[표 3] 2019년 8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



I 자치구별 증감률

-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자치구 중 전년 동월 대비 법인창업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지난달에 이어 영등포구(31.5%)와 구로구(26.3%)

- 다음으로 송파구(10.4%), 금천구(1.2%), 마포구(0.6%) 순, 반면 강남구(-11.0%), 강서구(-9.4%), 성동구(-8.8%), 서초구(-8.4%) 등의 지역은 감소

[표 4] 2019년 8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